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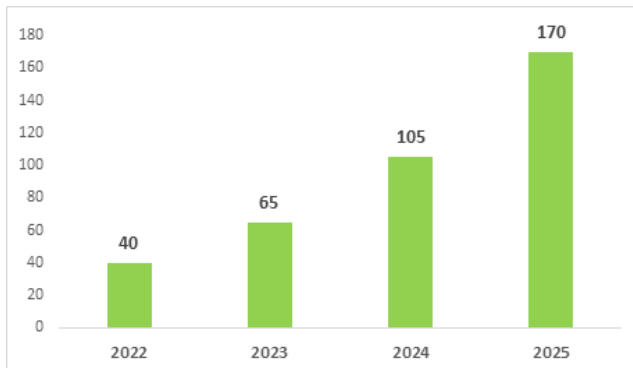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1/3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리창 총리, <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물류비용 절감> 발표

■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, 리창 총리는 5월 11일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중국 내 소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발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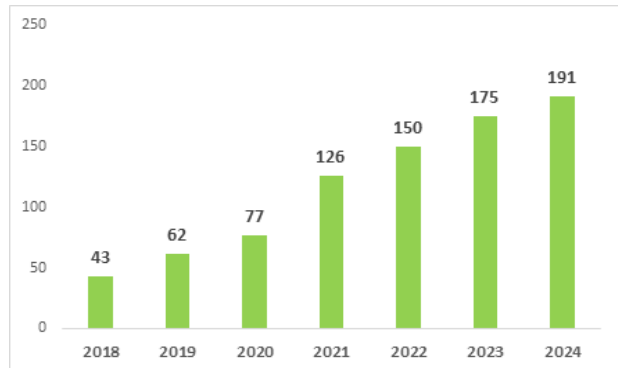
- 리창 총리는 화물 운송 최적화와 물류 디지털화·스마트화를 통해 콜드체인 물류 및 농촌 물류 운송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
-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부부장 류상동(刘向东)은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국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유지, 공급망 안정화 및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수시장 구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
- 한편, 5월 14일, 중상산업연구원이 발표한 <2024~2029년 중국 무인 배송 산업 발전전망 보고서>에 따르면 무인 배송은 물류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고, 2024년 중국의 무인 배송 시장규모는 2022년 40억 위안(한화 약 8천억 원)에서 2024년 170억 위안(약 3조 2천억 원)에 달할 것으로 전망

<2022~2025년 중국 무인 배송 시장규모 추이>
 (단위 : 억 위안)



출처 : 중상산업연구원

<2018~2024년 중국 무인 배송 로봇 시장규모 추이>
 (단위 : 억 위안)



출처 : 중상산업연구원

자료원 : 신화사

https://www.gov.cn/yaowen/liebiao/202405/content_6950510.htm
https://finance.cnr.cn/gundong/20240513/t20240513_526703029.shtml
<https://mp.weixin.qq.com/s/toCRRDqCNeU0ubZ8Dgz2rA>

2 中, <2024년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(초안)> 발표

- 5월 8일,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<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규범>(《锂电池行业规范条件(2024年本)》) 초안 발표, 5월 13일까지 민간부분 의견수렴 시행
- 동 초안의 주요 내용은 △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기업의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사업 억제, △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 및 사용수명에 대한 최저 기준치 제시, △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기업의 기술 혁신 강화, 제품 품질 개선, 생산 비용 절감, △녹색 공장 설립 장려 등
- 한편, 5월 6일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조사기관 GII(高工产研锂电研究所)의 발표에 따르면, 올해 1분기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출하량은 200GWh로 전년 동기대비 18% 증가한 것으로 집계

<중국 주요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업체>

| 기업명 | 기업소개 |
|---|---|
|  宁德时代 (宁德时代, CATL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1년 설립 ▶ 신에너지차 배터리 분야, 배터리 재활용 등 연구개발 및 제조 ▶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에너지차 배터리 탑재량 세계 1위 ▶ 2023년 2월, 포드(福特) 자동차와 합작 공장 건설 발표 ▶ 2023년 총매출: 4,009억 1,700만 위안(약 76조 원) |
|  비야디 (比亚迪, BYD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95년 설립 ▶ 휴대폰 부품 사업으로 시작하여 배터리 업체로 성장, 전자 및 자동차 사업까지 진출 ▶ 홍콩 및 선전에서 상장 ▶ 2024년 미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보그워너(博格华纳)와 최대 8년간의 기술 협력 계약 체결 ▶ 2023년 총매출 : 6,023억 1,500만 위안(약 114조 원) |
|  중창신항 (中创新航, CALB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07년 설립 ▶ 신에너지 기술 기업으로 신에너지 관련 제품 솔루션 제공 ▶ 장쑤(江苏), 푸젠(福建), 쓰촨(四川), 후베이(湖北), 안후이(安徽), 광둥(广东) 등 지역에 산업 기지 보유 ▶ 유럽, 태국 등 해외시장 확장 ▶ 2023년 8월 국가전기투자(国家电投) 후베이 회사와 전략적 협력 체결 ▶ 2023년 총매출 : 270억 600만 위안(약 5조 원) |
|  EVE에너지 (惠州亿纬锂能股份有限公司, EVE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01년 설립 ▶ 2009년 선전 창예반(创业板, 차스닥)에 상장, 리튬이온 배터리 플랫폼 회사로 성장 ▶ 신에너지차 배터리 핵심기술 및 관련 솔루션 보유 ▶ 사물인터넷, 에너지 인터넷 분야에 널리 활용 ▶ 2024년 4월, 하이디 스마트 에너지(海得智慧能源), 린양에너지(林洋储能), 징커에너지(晶科储能) 등 기업과 MOU 체결 ▶ 2023년 총매출 : 487억 8,400만 위안(약 9.2조 원) |

| | |
|--|--|
|  <p>귀시안가오커 (国轩高科, GOTION HIGH-TECH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5년 설립 ▶ 신에너지차 배터리, 에너지 저장, 송배전 설비 등의 산업부문에 연구개발, 구매, 생산, 판매 체계 구축 ▶ 미국, 독일, 일본, 인도, 베트남 등 지역에 해외 생산기지 확보 ▶ 2023년 3월 일본 에디슨 에너지와 MOU 체결 ▶ 2024년 3월 우한 웨이라이(蔚来) 에너지와 MOU 체결 ▶ 2023년 총매출 : 316억 500만 위안(약 6조 원) |
|  <p>평차오에너지 (蜂巢能源, SVOLT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8년 설립 ▶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전문 회사 ▶ 신에너지차 배터리 연구개발, 생산 판매에 주력 ▶ 전기 배터리 및 모듈, 배터리 팩, 맞춤형 전기 배터리 생산 ▶ 2023년 9월, 웨이라이자동차(蔚来汽车)와 합작회사 설립 |
|  <p>신왕다동력 (欣旺达动力, SEVB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4년 설립 ▶ 신에너지차 배터리 솔루션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공급업체 ▶ 2022년 기준 신에너지차 배터리 출하량 12.11GWh 달성 ▶ 후이저우(惠州), 난징(南京), 더양(德阳), 이창(宜昌), 이우(义乌) 등 지역에서 산업 기지 확보 ▶ 미국, 이스라엘, 독일, 한국, 일본 등 해외지역에 기술 센터와 고객 센터 설립 ▶ 2023년 총매출 : 478억 6,200만 위안(약 9조 원) |
|  <p>강소정력신에너지전지기술 유한회사 (江苏正力新能电池技术有限公司, ZENERGY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9년 설립 ▶ 신에너지 리튬이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의 연구개발, 생산 및 판매 ▶ 장쑤(江苏), 광둥(广东) 등 지역에 생산기지와 R&D센터 설립 ▶ BEV, HEV, PHEV, 에너지 저장장치 및 항공기 배터리 등 제품 시스템 개발 ▶ 2023년 6월, 프랑스 TIAMAT사와 MOU 체결 ▶ 2023년 총매출 : 19억 4,600만 위안(약 3,679억 원) |
|  <p>뤄푸란첸 (瑞浦兰钧, REPT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17년 설립 ▶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, 생산, 판매에 주력 ▶ 상하이(上海), 윈저우(温州), 자싱(嘉兴)에 연구개발센터 보유, 류저우(柳州), 포산(佛山), 충칭(重庆) 등 지역에 생산기지 확보 ▶ 2022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중국 내 상위 10위권 ▶ 2023년 총매출 : 137억 4,900만 위안(약 2.6조 원) |
|  <p>둬푸둬 (多氟多, DFD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99년 설립 ▶ 2010년 선전 증권거래소 상장 ▶ 주요 사업 분야는 불소계 신소재, 신에너지 소재, 전자정보 소재, 리튬이온 배터리 등 ▶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'육불화인산리튬(LiPF6)'의 생산능력은 연당 6.5만 톤으로 중국 내 시장점유율 35% 차지 ▶ 2024년 서울바이오허브사업단(SBH)과 협력하여 S6F NEWERGY 회사 설립 ▶ 2023년 총매출 : 119억 3,700만 위안(약 2.3조 원) |

출처 : 각 회사 사이트, 중상산업연구원

자료원 : 공업정보화부

https://www.miit.gov.cn/jgsj/dzs/gzdt/art/2024/art_56ad1373916c4aafac1bfb9934a48b79.html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98303400596286345&wfr=spider&for=pc>

<https://www.itdcw.com/news/top/1025130492023.html>

3 中 재정부, <경기부양 위한 초장기 특별국채 5월 17일부터 발행> 발표

■ 5월 13일, 중국 재정부는 경기부양 위해 5월 17일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계획 발표

* 초장기 특별국채 : '초장기'는 채권 발행기간이 10년 이상, '특별 국채'는 특별 용도 및 프로젝트 지원목적으로 발행하는 국채를 통칭

- 중국 재정부는 우선 5월 17일부터 30년 만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, 이달 24일 및 내달 14일에 각각 20년 만기, 5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. 정확한 첫 발행 규모는 언급하지 않음
- 앞서 지난 3월 6일, 국가발개위 정산제(郑栅洁) 국장은 올해 1조 위안(한화 약 185조 원)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국가 주요 전략 및 핵심 분야의 안보역량 강화에 특별히 사용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
- 한편, 중국 정부는 지난 1998년, 2017년, 2020년 등 3회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함

자료원 : 재정부

https://gks.mof.gov.cn/zttz/guozhaiguanli/gzfxgzdt/202405/t20240513_3934688.htm

4 中 리창 총리, <신형 인프라 투자·신형 도시화 건설 구축 강화> 발표

■ 5월 13일 리창 총리는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서 <신형 인프라 투자·신형 도시화 건설 구축>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

- 리창 총리는 정부투자 및 민간투자를 강화하고 민간자본이 신형 인프라 투자·신형 도시화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 강조
- 또한 리 총리는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국가 중대 사업 및 중점분야 안보를 강화하고, 재정 및 통화정책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

자료원 : 신화사

https://www.gov.cn/yaowen/liebiao/202405/content_6950738.htm

5 中, <인터넷 부정경쟁방지법> 발표, 9월 1일부터 시행

■ 5월 11일,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 경영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<인터넷 부정경쟁방지법>《网络反不正当竞争暂行规定》을 발표,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

- 동 규정은 총 5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됐고, 주요 내용은 △불법 데이터 취득 등 각종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인정기준 및 규제 사항 제시, △플랫폼 책임 강화 : 플랫폼 내 경쟁행위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 강화 및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데이터 알고리즘 남용 행위 규제, △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: 온라인 쇼핑물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장거래 등 행위 단속, △법적 책임 강화 : 불법소득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감독 관리 강화 등임

자료원 :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

https://www.samr.gov.cn/zw/zfxxgk/fdzdgnr/fgs/art/2024/art_80019fe59e464196bef173dc56678a42.html

https://www.samr.gov.cn/xw/tp/art/2024/art_10a2e5d4a5ab41db8a1d25a6e7ac4927.html

6 美, 중국산 전기차 관세 4배 인상 추진, 중국 외교부 강력 반발

■ 5월 13일, 제일재경 보도에 따르면 5월 10일 중국 외교부 뉴스대변인 린지엔(林剑)은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%에서 100%로 약 4배 인상 추진하는 데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

- 린지엔(林剑)은 미국이 WTO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철폐를 촉구. 중국은 권익을 수호하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
- 한편, 베이징다칭(大成)로펌의 순레이(孙磊) 변호사는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인상 조치는 테슬라 등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계 자동차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
- 또한 중국기업 입장에서 투자 및 공장 이전의 압박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, 만약 자동차 조립과 생산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, 알루미늄, 엔진 기술,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포함한 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

자료원 : 제일재경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98938144705311251&wfr=spider&for=pc>